



내일을 위한 생각! 멈추지 않는 열정!

Moving forward!

성실과 열정이 빚어낸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전력기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발전소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KEPCO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Family

2022. 09+10



Completion is near

-
-
-
-
-

• 완성되어가는 결과!

2022 09+10

KEPCO E&C Family



통권 472호 2022년 9,10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2년 9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04 Brief News

ZRE사와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체코 TES사와 신규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서해안 청정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울 3,4호기 용역재개에 따른 설계협력사 워크숍 개최
원자력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22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2022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 실시
노사합동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 시행
제7기 재능나눔미봉사단 발대식 개최
2021-2022년 독서경영교육 도서 기부 시행

08 산업동향

‘우영우’ 신드롬과 토종 OTT의 미래

10 Sci-Tech

수학의 시각화

12 팀소개

기술관리실 지식정보팀

14 슬기로운 회사생활

하얀 실 엮어 좋은 꿈 쫓아 : 마크라메 드림캐처 만들기

18 가족과 함께

부항댐 생태휴향펜션에서 하루밤 지내기

22 일하며 즐기며

진어무경(振於無境)의 경지 - 한기 서각회

24 팀이 함께하는 맛집탐방

복날 더위를 물리칠 몸보신 스테이크 핫스테이크

26 Together with you

마음으로 꿈꾸는 열린도서관

29 직원참여마당

체스키름로프 성 앞에서

30 카메라 루시다

김천 직지사 / 정읍 백양사

32 Shall We Meet?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김경환 주무관

34 갈등관리와 소통

추측 아닌 질문으로 갈등 예방하기

36 지역탐방

모두가 함께 노는 폐교, 에제르

38 머니머니

부동산경매

40 미술관 가기

팀 버튼 특별전

42 수필

사투리가족

42 문화소식

도서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 외

46 Editor's Letter

독자의견 등



KEPCO E&C N e w s

ZRE사와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6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에서 ZRE 카토비체(Katowice)사와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ZRE사는 배관 및 계측제어 분야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폴란드 내 발전시설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주요 잠재공급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암 사장은 “설계분야 현지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원전 신규도입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원전을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경쟁우위 요소”라며, “ZRE사와 같이 역량 있는 잠재공급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협력망을 확장함으로써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4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6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폴란드 신규원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TES사와 신규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6월 28일(현지시간) 체코 엔지니어링 기업 TES사와 ‘체코 신규원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MOU 체결식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체결식에는 김성암 사장과 TES사 오토 마레ček CEO를 비롯한 양사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체코 시첼라 산업통상부 차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TES사는 1992년에 설립된 원자력 분야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체코 및 슬로바키아 지역 원전에 대한 안전해석과 시운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APR1000 안전해석, ▲발전소 인허가 및 현지 법규 관련 기술자문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성암 사장은 “원전 안전해석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TES사와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사업 뿐만 아니라 후속 체코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까지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암 사장은 29일까지 체코 방문을 마치고 30일부터 폴란드를 방문하여 원전 수주활동을 이어갔다. 폴란드를 방문하여 한국형 원전의 설계특성과 우리회사의 우수한 설계기술력을 홍보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해안 청정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2일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외 7개사와 ‘서해안 청정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머드린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동규 부시장과 김동일 보령시장,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을 비롯한 각 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협약식에서 참여기관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무탄소 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협력 원칙과



ZRE사와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서해안 청정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울 3,4호기 용역재개에 따른 설계협력사 워크숍 개최

내용을 정하였으며, 청정에너지의 생산, 도입, 저장, 사용 및 허브터미널 구축, 국내 보급 등 청정에너지 전주기 활용의 서해안 거점 도시 조성에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무탄소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필수적이며, 회사는 에너지플랜트 분야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무탄소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기술 개발 및 청정에너지 도입사업의 적극 참여로 미래성장사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용역재개에 따른 설계협력사 워크숍 개최

7월 28일 신한울 3,4호기 용역재개에 따른 설계협력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박범서 원자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술실장 등 한기 임직원 10명과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관련 설계협력사 임직원 2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용역재개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설계협력사 협업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원자력생태계 복원 관련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박범서 원자력본부장은 “용역 중지 및 재개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서 설계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설계협력사와의 협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며 이에 한기도 협력사 인력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은 지난 2016년 3월 착수했으나 2017년 6월 중지되었으며, 이후 2022년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로 건설재개를 확정한다 바 있다.

원자력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8월 9일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를 초청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김용수 전력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RE100에서 CF100으로의 전환, ▶원자력의 위험성 및 방사능 과다, ▶원자력 유연운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처분,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이해, ▶탄소중립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세계적 추세, ▶윤석열 정부 원자력 강국 건설 정책,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현황과 미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용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기후학적으로 RE100은 한계가 있으며, 원자력을 포함한 CF100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방안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토론회 개최

8월 24일 3층 영상회의실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자력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KEPCO E&C N e w s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데이터 기반 업무수행 문화 조성과 데이터기반행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외부전문가(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진원 교수)를 초빙하여 법률내용 및 실태점검 관련 강의와 질의응답,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함기항 경영관리 부사장을 비롯한 전력기술연구원장, 데이터기반행정 협의체 구성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에서 최진원 교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체계 정립과 함께 경영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적용 취지와 데이터기반 업무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으며, 회사는 데이터기반 업무문화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데이터기반 행정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6월 28일 김천 본사에서 2022년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전경영위원회는 회사 위원, 근로자 위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련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함기항 경영관리본부장, 안전관리실장 등 회사위원 4인, 한기노동조합과 한기서비스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4인, 김천대학교 교수인 전문가위원 2인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의에서는 신규 위촉 위원들의 위촉식,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회사 대응현황 보고 및 설명이 있는 후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회사는 안전경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사 및 근로자 위원과 전문가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회사의 안전경영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2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 실시

2022년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을 7월 4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 동안 본사 및 대전에서 시행하였다. 교육은 입사 2~4년차 기술직/연구직 직원 85명과 수강희망자를 대상으로 7개 분야(원자력,에너지신사업,원자로계통설계 등) 125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원전 설계 기술력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발전소 설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사고 형성을 위한 사전 통합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전 수요조사 및 교육 참여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교육 운영을 강화하였다.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은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및 사후관리/신재생 등 신성장 사업의 기본지식 교육을 통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직무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고, 원전 설계 기술력 향상 및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22년 상반기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2022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 실시



노사합동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 시행



제7기 재능나눔미봉사단 발대식 개최



2021-2022년 독서경영교육 도서 기부 시행

노사합동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 시행

8월 19일(금) 노사합동으로 수해현장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은 주변에 산이 많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특히 침수피해가 컸으며, 해당가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계곡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더 극심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조집행부가 함께 참여하여 무덥고 습한 날씨에 피해가구의 침수된 집기정리 및 계곡범람으로 인한 토사물 정리 등 구슬땀을 흘리며 침수가구에 도움의 손길을 더했다. 봉사단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재난상황까지 더해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에게 “봉사단의 피해복구 활동 노력과 마음이 잘 전달되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회사는 노사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재난상황극복 및 지역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7기 재능나눔미봉사단 발대식 개최

8월 17일 제7기 재능나눔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재능나눔미봉사단은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봉사를 활성화 하고 저소득층 가구 아동들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2016년 창설하여 벌써 제7기를 맞이한 2022년 재능나눔미봉사단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총23명의 단원들이 아동들의 정서지원 및 교육체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기항 부사장은 “재능나눔미 봉사단은 우리회사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손길하나, 마음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하는 마음에 감사를 표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김천시 드림스타트와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관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2022년 독서경영교육 도서 기부 시행

2021-2022년 독서경영교육 도서 기부가 6월 29일 시행되었다. 이번 도서기부는 2021-2022년 독서경영 및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도서 포인트 기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982,070원이 모금되었다. 회사는 협약된 김천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 3곳(김천사랑지역아동센터, 김천부곡지역아동센터, 김천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을 선정하여 총 267권의 도서를 기부하였다. 특히 각 지역아동센터별 수요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도서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독서활동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2020년 이래로 독서경영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 기부 활동을 2년 연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독서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다각화된 기부 방안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 및 상생 가치 실현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영우’ 신드롬과 토종 OTT의 미래



요즘은 어딜가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기자라는 직업상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영우 이야기는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다. 얼마 전엔 오랜만에 만난 친구, 김영석씨가 다짜고짜 드라마 속 우영우 인사법을 따라해서 곤란을 겪었다. 평소 내성적이었던 그가 술도 마시지 않은 채 양 주먹을 위아래로 휘저으며 “김 to the 영 to the 석”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 인기를 새삼 실감했다.

#OTT타고 날개 단 우영우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탄생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이다. 처음 지상파 방송국과 드라마 제작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제작사와 방송국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아마도 지상파 방송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드라마 플랫폼의 틀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컸을 것이다.

이때 의외의 기업이 우영우 제작에 뛰어들었다. 드라마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통신사가 투자자로 나선 것이다. 이 통신사는 우영우 방영권을 따오기 위해 회당 ‘억 소리’ 나는 금액을 제작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쯤 제작투자를 주도한 담당자의 어깨가 으쓱할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우영우는 OTT플랫폼, 넷플릭스를 만나면서 날개를 달았다. 물론 케이블채널과 토종OTT 플랫폼 ‘시즌’에서도 드라마를 방영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고려한다면 ‘우영우 신드롬’의 가장 큰 무기는 넷플릭스라고 할 만하다.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국내 시장의 넷플릭스 이용자는 1,117만 명이며 시즌 이용자는 156만 명 수준이다.

우영우의 성공은 콘텐츠 시장이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졌는지를 증명했다. 제작투자에 참여한 통신사의 콘텐츠 자회사는 1년 사이 매출액이 34.7% 상승했다. 우영우는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구독료만 오르고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넷플릭스의 체면도 살렸다. 8월 1주차 기준 비영어 부문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기록했고 아시아와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넷플릭스 콘텐츠 순위 TOP 10안에 들었다.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 연속 가입자 수 감소를 겪으며 유료 이용자가 200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우영우가 ‘흔들리는 OTT 제왕’의 자존심을 세웠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토종OTT가 살려면

이쯤되니 토종 OTT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난망한 상황에서 잘 키운 OTT 작품 1개가 대작 영화 10편 부럽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특히나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우영우’ 등 국민적 사랑을 받은 한국 작품들이 모두 해외 플랫폼을 통해 제작되거나 방영됐으니, 소비자들은 다소 의아할 법도 하다. 한편으로는 토종 OTT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물론 2억 명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에 비하면 토종 OTT플랫폼은 ‘중소형 플랫폼’ 수준으로 막대한 자금력 차이를 감당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OTT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제2의 우영우는 또다시 해외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토종 OTT플랫폼의 통폐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영우 사례와 같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고, 정부의 국내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OTT업계의 숙원인 영상물등급

자

체심사제도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 토

종 OTT플랫폼들은 글로벌 수준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K콘텐츠의 경쟁력은 2000년

대 초반 일본 열도를 강타한 ‘윤사마 열풍’부터 글로벌

그룹으로 거듭난 BTS까지 수차례 입증되고 있다. 토종

OTT플랫폼들이 제2의 우영우 신드롬을 만들고 글로벌

OTT플랫폼과 멋진 승부를 겨루길 기대해 본다. E&C

수학의 시각화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낫다.” 수학은 시각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원이 달라진다.

가우스 평면의 일차원 수직선 세계가 실수의 좌표축을 가로지르는 허수의 축을 상정하므로 공간은 입체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벡터의 등장도 이와 비슷하다. 인간은 어떤 개념과 현상을 그림으로 볼 때 비로소 이해하고 믿기 시작한다.

또 이것이 대중화의 첩경이기도 하다.

허준이 교수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받았다. 조합론의 난제를 대수 기하학을 통해 해결했다(리드, 로타 추측). 조합론과 기하학은 수학 나라에서 다른 동네에 해당한다. 그가 숫자 동네와 그림 동네간 연결 다리를 놓았다. 다르게 보이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일. 뉴튼 거시 물리학과 미소한 양자 입자론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작동한다. 아직 둘을 연결하는 물리법칙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리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경이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있다. 만약 두 세계의 연결고리 열쇠를 찾는다면 일명 ‘만능이론’이 등극하는 셈이다.

간혹 “그게 산수지 수학이냐?”라는 말을 듣는다. 둘은 다른 걸까, 같은 걸까? 대개 수포자는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좌절에서 나온다. 학교는 정의와 공식을 짧게 보여주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니 원리나 개념을 모른 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의미와 이유를 모르니 재미가 없다. 공학수학은 공식이 아주 많다. 공학용 계산기와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산을 대신해준다. 패러데이의 전기현상을 정확히 유추했지만 수학이 약했다. 맥스웰이 멋진 수리 공식으로 완성하였다. 물리현상을 수리 공식으로 환원한 사람들은 천재였다. 이미 증명된 공식을 공학자들이 이용한다. 수리 공식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은 ‘수학’을 하고 공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문제를 푼다면 ‘계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학은 일종의 언어라고 허 교수는 말한다. 어떤 언어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수학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 수학 할 때, 그는 한국어로 생각할 때와 영어로 생각해 볼 때를 나눈다. 이러면 문제 성격이 다르게 보이고 착상이나 접근도 더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 그가 수학 난제를 연구할 때 처음 모호하고 두리뭉실하여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고 약간의 얇이 이리저리 선 회한다. 차근차근 생각하면 윤곽이 드러나고 그 증명 과정이 조금씩 보인다. 이게 글쓰기 과정과 같아 신기해 보였다. 허 교수는 게오르크 칸토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 무한개념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고(思考)는 사고자(思考者)를 기다린다”는 말이 맞는 듯 보인다.

순수 수학은 형이상학적 관념론 같다. 추상적이기에 그런 게 현실에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형이상학을 형이하학에 대입하여도 맞아떨어질 때가 많다. 정말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수학이 없다면 생각만으로 대중 짐작할 일이지만 수학을 통해 정말히 계산하면 더 정확한 값을 얻는다. 수학의 효용성이 여기서 빛난다. 지적 유희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응용의 길을 현실에 터 주고 있다.

“그래도 수학이 어렵고 두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수학의 특성을 이해하면 수학적 사고는 누구든 할 수 있다. 에드워드 윌슨 석좌교수(하버드대 생물학 박사)의 예를 들어본다. 그는 부모의 이혼과 잦은 전학으로 외로운 유년기를 혼자 도서관과 숲속을 돌아다니며 보냈다. 그래서 수학은 영 짬뽕이었다. 그가 과학 이론을 도출하거나 증명할 때 수학 잘하는 대학원생 제자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수학적 모델과 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는 단지 수학에 서툴렀을 뿐 실제로 열개는 스스로 그릴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수학적 마인드는 개념과 원리를 알아 연결점을 찾아내어 스토리를 만들고 사물과 현상을 시각화할 줄 아는 능력이 다. 공식과 계산에 조금 서툴더라도 밑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하다. 불규칙적 모호한 그림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사람이 수학에서 뛰어나다. **E&C**



팀소개

KNOWLEDGE & INFORMATION MANAGEMENT TEAM

기술관리실 지식정보팀

조선시대 춘추관은 국가 기록을 관장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등 역사적 위업을 남겼다. 기록은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기록을 관리하는 팀이 바로 기술관리실 지식정보팀이다. 지식정보팀은 회사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정보 자료관리, 회사 기록물관리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열린도서관 운영과 디지털발행실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기술정보 관리는 기술 도서, 국내외 산업규격(Code & Standard), 학술지, 논문 및 웹DB, 디지털 콘텐츠 등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이는 우리 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적시 제공하여 성과 창출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기술자료 14만 건을 비롯하여 40여 종 이상 국내 KS는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유럽 표준 등 세계 각국 표준 및 산업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 기록물**은 우리 회사 설계 역사기록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한국 원자력 설계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최초 고리1호기 설계문서를 비롯하여 내부기록물 720만 건, 1980년대 제작한 마이크로필름 170만 건, 회사 규정자료 10만 건 등을 관리하는 회사 기록물관리도 지식정보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오랜 역사와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만큼 보존 매체도 전자파일, 종이 문서, 마이크로필름, CD-ROM 등 다양하여 서로 다른 최적의 보존 환경을 위해 기록보관소 4곳에서 관리 중이다.

지식정보팀 업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임직원 가족과 김천시민들에게 지식과 문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열린도서관**이다. 영어 도서, 아동청소년도서, 교양도서 등 장서 18,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책날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지털통합발행실**은 사업 성과물 인쇄를 비롯하여 복사·제본·코팅 등 출력물 발행 업무와 명함 및 다양한 행사에 쓰이는 현수막, 품보드 등을 제작하고 있다. 초대장, 포토앨범, 포토달력, 연하장, 여권사진도 제작 가능한데 특히 증명사진 촬영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 지식정보팀의 각양각색 개성 넘치는 팀원들을 살펴보자.



[황정희 팀장]

잭스패로우 뺨치는 멋진 팀장님! 넘치는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팀을 이끌며 따뜻한 인간미로 팀원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직접 알려주는 지식정보팀을 이끄는 선장



[인정 차장]

지식정보팀 터줏대감으로 기술정보실에서 기술표준, 전자정보원 등 기술정보 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지식과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사서 전문가이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담당자



[정혜린 과장]

회사 기록물관리 기획, 기록물 교육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팀원과의 조화와 협업의 즐거움에 가치를 두고 항상 노력하며 원거리 출퇴근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원더우먼



[국경애 과장]

세 아이 아빠로 지식정보팀에서 전천후 국가이버로 유명하다. 현재는 열린도서관 운영을 도맡아 수행하며, 한기플랭크 동호회 총무도 맡은 다정한 남자



[정범진 대리]

회사기록물 이용서비스와 비밀기록물 및 매체기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꼼꼼하고 스마트한 업무 처리 능력자로 현재 꿀이 달달 흐르는 신혼을 즐기는 멋진 남자



[이진영 사원]

회사기록물 이관과 사규 및 절차서 관리를 담당하며 언제나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맡은 업무에 임하고 있다. 마르지 않는 긍정에너지로 팀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이저



[김종민 사원]

21년 신입사원으로 정보관리 분야에서 자료 구입 및 정리, 전자정보원 이용 안내뿐 아니라 디지털 발행실 관리를 맡고 있으며,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있는 잘생기고 듬직한 막내



[장예림 인턴]

여행이 취미인 장예림 인턴은 입사로 김천이 처음이다. 요즘 퇴근 후 동네를 둘러보는 재미로 살고 있다. 같이 있을 때면 밝게 말을 걸고자 노력하는 학습된 E성향의 소유자. 3개월동안 기술정보실과 열린도서관에서 활약을 기대해 본다.



[장민정 인턴]

친구들과 운동이나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인생의 목표. 잠이 많아 구미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게 힘들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자 다짐해 본다.



[장재형 인턴]

운동에 관심이 많아 유도, 태권도, 합기도 등 여러 운동을 하였고 아버지께서 성악을 하셔서 취미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었다.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멋진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E&C**





하얀 실 엮어 좋은 꿈 쫓아 _ 마크라메 드림캐처 만들기

마크라메는 아랍어로 '매듭실 레이스'라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 단어를 서양 매듭공예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마크라메는 새하얀 면사를 이용하여 그물처럼 엮어 장신구 등을 만든다. 새하얀 장식물이 면사포와 같은 종교적 의식물이 가지는 경건한 느낌을 준다. 매듭이라는 간단한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응용과 기교를 통해 많은 것을 제작할 수 있다. 오늘은 마크라메를 이용해 드림캐처를 제작할 예정이다. 악몽을 잡고 좋은 꿈을 가져온다는 드림캐처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전통 공예품이다. 아랍과 서양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 공예가 합쳐진 독특한 체험이다.

서양식 매듭이라는 마크라메는 남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공방 한 쪽에 마크라메 공예에 사용하는 여러 매듭이 전시되어 있는데 왠지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건 맞 매듭, 이건 고리 매듭, 낚시꾼 매듭 등 군대에서 수십 번 반복하여 배웠던 매듭법과 같거나 유사하다. 하지만 아기자기한 장식품 사이에 있으니 미적으로 훌륭하다고 느끼게 한다. 아무래도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 효용은 물론 그 물건이 주는 느낌이 달라진다.

오늘 체험을 하는 한기인들도 병아리 신병과 같다. 선생님이 '먼저 이걸 왼쪽으로 해서 요리 넣고 이쪽으로 빼세요'라고 시범을 보여도 손이 이리저리 꼬인다. 실을 이리저리 꼬아 자신 있게 힘을 주어 당기면 맥없이 풀기를 몇 차례, 손을 들고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제일 큰 고비는 둥근 원안에 별 모양 만들기이다. 보통 드림캐처는 거미줄에서 영감을 얻어 나쁜 꿈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거미줄 모양으로 만들지만, 오늘은 특별히 별 모양으로 제작한다. '꿈나라 속 별님' 다들 나름의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실의 방향을 잡는데 정신이 없다. 항상 첫 고비가 어려운 법이다. 열추 별이 만들어지자 이제 아래 길게 늘어뜨린 실을 자기 개성대로 만들어 매듭짓는다. 두 가닥을 꼬아 새끼줄처럼 만들기도 하면서 나름의 미적 감각을 뽐낸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이다. 매듭을 꼭 조이기도 하고 느슨하게 조이기도 하여 매듭으로 장식한 실의 끝부분이 미묘하게 서로 길이가 다르다. 머리를 깎을 때처럼 잘라주어야 단정하게 예쁜 작품이 탄생한다. 다들 단발로 할지 장발로 할지 고민중, 한 사우가 과감하게 짧게 자르면서 함께 비명을 지른다. 과감하게 자른 탓에 이게 아닌가 잘못 자른건가라는 고민을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보다 보니 정감이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자기 작품과 함께 빠질 수 없는 사진 촬영을 하고 오늘 체험이 끝을 맺는다.





박나희 사원 (배관기술실)

직장생활 하면서 퇴근 이후 취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이번 마크라메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따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도와주셔서 큰 실수 없이 매듭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매듭을 이용하여 일정 패턴을 만들고 각 실의 길이를 조절하여 내가 원하는 모양의 드림캐처를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매듭짓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또 조용히 매듭을 짓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는 순간이 있어 불명 아닌 매명(?)하며 힐링하였습니다. 수업 전에 여러 마크라메 디자인을 찾아보지 못해서 어떤 드림캐처를 만들지, 실 끝부분에 붙일 깃털 색을 어떻게 조합할지 굉장히 고민하였지만, 선생님 디자인을 참고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모두 완성하고 나니 비슷한 디자인이라도 각자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업실에는 선생님 작품들이 가득했는데 다음 기회가 오면 마크라메를 이용한 조명 덮개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드림캐처는 방문에 걸어 좋은 꿈꾸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한 사우분들도 좋은 기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린 사원 (상생노무처)

홍보팀에서 진행하는 '드림캐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에 선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었고 침실에 걸어둘 예쁜 드림캐처를 갖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두 가지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기에 집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줄 한줄 직접 엮으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소 모던한 사내 직원분들과도 함께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크라메'라는 새로운 취미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준 홍보팀에 감사드립니다.

Macramé



한신애 대리 (구조부지기술실)

동그란 틀 안에 거미줄처럼 엮어둔 끈들이 악몽을 잡아주고 틀 아래 장식한 깃털은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는 드림캐처 이야기를 어릴 적 들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림캐처를 집에 꼭 걸어두는 편입니다.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본 것은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초심자이기에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동그란 틀 안에 별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로 굵은 끈을 매듭 지어 장식하는 방식으로 드림캐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매듭 지을 때 같은 매듭이어도 설렁설렁하게 매듭을 묶느냐 뽀뽀하게 매듭을 만드느냐에 따라 장식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열기설기 만들었을 때 모양이 뽀뽀하게 좀 더 공을 들였을 때보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 삶도 너무 뽀뽀하기보다는 설렁설렁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하였던 경험이었습니다.



조선빈 사원 (계약구매실)

'마크라메'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였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매듭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작은 링 가운데 별 모양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링에 뒷 머리 매듭으로 실을 걸어준 뒤 매듭을 강하게 짓거나 느슨하게 지어 패턴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깃털을 붙여 완성하였습니다. 마크라메 드림캐처는 다른 드림캐처와는 다르게 벽에 거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최근 독립한 자취방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최근 패브릭포스터를 구매해 걸어 놓을 거 고민하던 자리에 드림캐처를 걸어두고 뜻깊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드림캐처를 회사에서 여기저기 자랑하였고 드림캐처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고 그날 체험은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동기 언니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사우분들을 만나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E&C**





잘 노는 아이가 잘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평일이든 주말
이든 아이들과 잘 놀아주어야
아이들 자존감도 높아지고 밝
은 아이로 성장한다. 특히 코로
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집에서 휴식 또한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 피곤함의 꼬
리가 회사까지 이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
는 일상들……

주말에 뭔가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까 하는 고민에서 취미로 시작한 캠핑 덕분
에 우리 가족은 이제 주말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 있다. 주말을 아이들과 함께 잘
보내니 스트레스도 많이 사라지고, 평소 마음이 편해지니 회사에서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는 느낌이다.

최근 부항댐 인근 생태휴양펜션이 새로 개관하였다. 우리 가족이 이번에 다녀온
카라반에서 하룻밤 체험기를 소개한다. 카라반에서 숙박도 넓게 보면 캠핑을
즐기는 여러 방법의 하나이다. 캠핑은 바로 잠시 편리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에서 불편함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이런 자발적 불편함에 뛰
어든 지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캠핑의 매력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잡다한 방해꾼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오롯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다는 점이다. 날이 더우면 계곡으로 가서 시원한 수박과 아이들 옷을 속에서 더
위를 날리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난로 위 고구마로 가족들과 따
뜻한 한담을 나누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여유 등 일
상에서 평범한 것들이 밖에서는 더 소중한 작은 행복으로 다가온다.



품질보증팀 박재우 차장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에서 하루밤 지내기 (카라반)

주말이면 평소 아침보다 일찍부터 귤가에 소곤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뜨게 된다.
8살 6살 두 딸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 '아빠 나랑 놀자!' 아이들은 쉬는 날 엄마 아빠와 꼭 놀이를 해야 한다는
공식이 있는거 같다. 또 주말이면 어디든 나가고 싶어 한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이것 또한
나름 행복한 스트레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생태휴양펜션은 우리 가족이 자주 가는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인근에 있다. 이곳은 부항댐을 조망하는 곳에 카라반 7동과 펜션 24동이 있는 아기자기한 리조트 느낌이다. 카라반 입실은 오후 3시였기 때문에 부항댐 주변을 둘러볼 겸 조금 일찍 나들이 채비를 하고 집에서 나왔다. 아직 한참 더운 날씨여서 땡볕 아래 아이들과 돌아다닐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항댐 출렁다리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레 흑돼지 저녁 식사까지 나름 소박하지만 알찬 여행을 계획하였다.

특히 우리 가족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바탕 고생한 터라 아직 몸 상태가 온전치는 않았다. 그렇지만 오랜만의 외출에 기분전환이 되었다. 아이들은 기분이 좋은지 차를 타고 여기로 오는 내내 조잘조잘 웃음소리에 귀가 따갑기는 했지만요. 부항댐까지 오는 길에는 소나기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한여름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시원한 빗소리에 마음도 상쾌해지는 느낌이 었다.



부항댐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기운이 조금 빠지는 듯했다. 다행히 출렁다리 주변에 큰 나무 몇 그루가 선선한 기운을 내려준 덕분에 상쾌함을 느꼈다. 아이들과 김천에 터를 잡은지 8년이 다 되어가는데 출렁다리는 이제야 처음 와 보다니 그동안 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더군요. 출렁다리가 제법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발걸음 한 발짝에도 긴장감이 느껴졌고 무더위를 살짝 잊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부항댐 질라인으로 향했다.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 가족은 직접 타보지는 않았지만, 질라인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구경도 나름 재미 있었다. 대신 무지개 의자가 있는 포토존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쁜 사진 한 컷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매점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히고 3시 즈음 카라반으로 향했다.

카라반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데크 위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까지 카라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카라반도 일반 펜션과 같이 에어컨, 냉장고, TV 등 한 가족이 하루를 보내기에 부족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더위를 피해 바닥을 나뭇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오늘 여행에서는 캠핑에서 느끼는 더위와 싸움은 덜어낼 수 있었다. 추억에 남는 것은 사진이라 가족사진으로 아내와 끈끈한 우정을 아이들과 아낌없는 사랑을 사진으로 남겼다.

하지만 부족한 감성 한 손가락을 채워 넣기 위해 저녁 식사는 야외에서 그릴들 위에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하였다. 지레 흑돼지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동안 눈가에 흘러내리는 땀방울들이 캠핑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었다. 그리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 아이들과 저녁 만찬 준비를 끝내고 나니 아이들은 고기 한 점을 먹고는 '역시 밖에서 먹는 고기가 최고야!'라며 저를 뿌듯하게 해주었다. 후식으로는 가벼운 저녁 산책으로 짧지만 붉은 카라반에서의 하루를 마감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가족이 있기에 삶이 좀 더 행복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가정에서 좋은 가장이 되는 것과 같이 직장에서도 가치 있는 동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뜻깊은 여행이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힘을 주는 만큼 이런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드린다. E&C





진어무경(振於無境)의 경지 _ 한기서각회

7월 11일~15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나무와 선과 글의 아름다운 동행” 한기서각회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2년간 동호회 활동이 어려웠고 그간 퇴직으로 떠난 회원도 있어 침체기 이후 재개한 활동이다. 40여 점 작품에 열정과 정성을 담아 글자와 그림으로 서각회를 되살렸다.

예전 인도화와 혁필화는 관광지과 장터에서 흔한 구경거리였다. 혁필화는 가족에 오색 물감을 묻혀 쓱 움직이면 봉황, 용, 호랑이, 소나무가 글자와 그림으로 신기하게 나타났다. 전통 서각이 나무결 따라 쓴 글귀 위주였다면 현대 서각은 그림, 글자, 조각, 색칠이 어울려 주제와 형태에서 훨씬 자유분방한 종합미술로 발전하였다.

한기서각회 강현중 총무를 통해 서각 세계를 들여다본다. “악기나 운동 같은 취미는 단시간 성취 결과를 마주하기에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각은 2~3개월 짧은 시간에 완성도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미로서 이게 장점이죠. 일명 ‘불명물명’ 말도 있지만 ‘서각명’이라 불러봅니다. 몰입 시간은 비어내는 시간이자 집중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잡념이 없어지고 무념 무상에 닿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적격이지요.”

서각 재질로 은행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연질로 핸들링 쉬운 목재이다. 느티나무는 강질이라 전통 서각에 애용되는 일명 도장나무다. 견고한 내구성만큼 세공이 힘들다. 간혹 소나무도 채택하는데 결이 찢어지기 쉽고 송진도 새어나와 주의를 요한다. 작업공구로 끌 칼창 망치 톱 등

을 이용한다. 색칠에는 주로 한국화 물감을 바르며 마지막 라커 칠로 마무리한다. 제재소에서 큰 나무를 골라 운반하고 지하실에서 전기톱으로 층과 켄 나누는 작업을 따로 한다.

작품 중 유교와 불교 문구가 보여 글귀와 모양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궁금하였다. “만드는 이 마음을 담아내기에 종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 이번 ‘그가 찢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출품했습니다. 지인에게 선물할 경우 그분의 떠오르는 이미지와 드리고 싶은 언어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가 찢림은’ 작품은 십자가를 지고 엮인 인간 형상이란 걸 곧 알 수 있었다. 관람자가 생각된 술어를 스스로 넣어 볼 수도 있겠다.

글자보다 그림에 가까운 전서체는 모양을 보고 한자를 유추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 그림과 글자를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다. 사람 따라 또 그림을 다르게 구사하여 해독이 안되는 때도 있다. 서각회는 전서체 사전을 참고하여 열 개, 스물 개 글자의 형태 중 하나를 고른다는 설명을 듣고 궁금증이 풀렸다. ‘구유소(龜遊沼)’는 거북이와 연못을 보고 직관적으로 알아보았지만 ‘놀 유’는 풀지 못했다. ‘거북이 노니는 연못’은 한가로운 평화를 상징하는 뜻으로 서도에서 자주 접하는 문구다.

글씨가 움직여 그림이 되기도 하고 그림이 살아나 글자가 되는 서각은 문자, 그림, 도안, 색감의 사중주가 연합하여 묘한 입체미를 불러온다. 권명인 부장의 ‘덕불고(德不孤)’ 작품은 필유린(必有隣)으로 이어지는 논어 글귀다. “덕을 베풀면 외롭지 않아 필히 따르는 이가 생긴다.” 눈길을 잡아끄는 작품은 ‘진어무경(振於無境)’이다. 현란한 색감을 덜어 물 빠진 은은한 색조다. 만다라를 떠올리는 세공은 정밀하기 그지없다. 중첩된 사각형에서 글이 등실 허공으로 떠오르는 느낌이다. “떨쳐내어 아무런 경계가 없다” 떨쳐낸다면 주객과 내외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겠다. 현재 한기서각회는 신규 회원 모집 중. 뜻있는 분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E&C

복날 더위를 물리칠 몸보신 스테이크 훗스테이크

일찍 무더위가 시작된 탓인지 팀원들 모두가 조금 기운이 빠져있는 듯하였다. 초복과 중복이 지났지만, 김천 생활에서 몸보신을 위해 챙겨 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들 퇴근할 때쯤 맛집탐방 모집 게시물을 보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팀원들과 관계도 돈독히하고 몸보신도 할 겸해서 신청하였다.



전기기술실 KCMS팀

김천에서 프리미엄 가성비 스테이크 맛집이 있다. 프리미엄과 가성비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합에 더욱 끌리었다. 바로 '훗스테이크 김천점'이다. 8월 여름 어느 저녁 '역시 몸보신에는 고기!'라고 외치며 팀원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 한 끼를 위해 여정을 떠났다. 출발 전부터 어떤 스테이크를 먹을지 기대 만발! 오늘은 모두 정시퇴근!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시골길을 달려가니 흥이 나며 즐겁다. 도란도란 팀원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다 보니 한적한 곳에 덩그러니 가게가 나타났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여 주차 걱정이 없다는 것이 이곳의 또 다른 장점이다.

'훗스테이크'는 기차길 옆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가게 앞에는 예쁜 꽃들이 만개하여 눈을 즐겁게 한다. 간간이 지나가는 기차는 오늘의 분위기에 운치를 더한다. 오늘 함께한 우리 팀원들은 모두 6명 예약을 하고 6시 30분에 도착하였지만, 테이블은 여전히 여유가 있다. 음식을 천천히 고르고 있으니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방문 전 후기를 보니 주말에는 대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 가기 전 예약하기를 추천한다.

훗스테이크는 매일 직접 손질한 프리미엄 냉장 신선육을 제공한다. 이를 증명하듯 신선한 고기가 전시된 냉장실을 손님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냉장실에 들어있는 신선육을 직접 보니 먹기 전부터 맛이 더욱 기대되었다. 스테이크 종류는 등심, 부챗살, 토시살, 살치살, 찹(chap), 수제 함박이 있고 각자 먹고 싶은 스테이크를 자기



취향에 따라 골고루 주문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와인 5잔도 함께 주문하였다. 하우스 와인도 한잔에 3,500원으로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

먼저 주문한 와인으로 '올 여름도 화이트'라고 외치며 건배 제의를 한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입안에 살짝 달콤한 감미가 감돌아 식욕을 돋운다. 주문한 그린 샐러드와 파스타가 나왔다. 합리적 가격임에도 꾸덕꾸덕한 소스에 통통한 새우가 인원 수에 맞추기라고 한 듯 세마리나 들어 있어 눈치 보지 않고 한 마리씩 먹을 수 있었다.

드디어 메인요리 등장!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테이크가 나왔다. 스테이크는 기본 미디엄 레어로 준비되고 단면을 잘라 취향에 맞게 달궈진 팬에 구우면 된다. 나는 미디엄 레어를 좋아하여 굵기가 딱 내 취향에 맞아 만족스러웠다. 결들임으로 양파, 그린빈, 옥수수가 올려져 맛있게 뽀얀 팬 위에 색감을 더해주었다. 한 조각 잘라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소스 없이 먹어보았다. 부드러운 토시살에서 고소한 육즙이 터져 나와 입안을 가득 채웠다. 만족 대만족이다. 함께 나온 소스는 스테이크에 풍미를 더해 더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게다가 함께 나온 와사비를 결들이니 너무 맵지 않고 달콤한 느낌에 물릴 법한 스테이크에 신선함을 불어 넣어주어 만족스러웠다.

올해 서울에는 큰 물난리가 났지만, 김천에는 아직 제대로 된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다. 모두 무더위에 지칠 즈음 여름철 팀원들의 사기 진작 및 율곡동에 이사 온 한 동료를 환영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는데 팀원들이 만족하였다. 앞으로도 자주 함께하자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그동안 코로나로 함께한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함께 소통할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오늘 하루도 더 가까운 사람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날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가게 주변에 조명이 참 아름다웠다. 스테이크를 가성비 있게 즐기고 싶다면 하루는 특별한 외식을 즐기고 싶다면 '훗스테이크 김천점'에 다녀오기를 추천한다. E&C



마음으로 꿈꾸는 열린도서관

열린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잠시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이 조정되어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김천지역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한기 직원들 자녀를 위해 다시 문을 열었다. 최근 폭염이 심해지면서 김천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열린도서관은 2년 만의 오픈을 위해 한 달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여러 행사를 기획하였다. 오랜만에 오픈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담당부서의 고심끝에 책날개 행사, 키즈 DVD 상영 그리고 키즈 만들기 체험까지 방학 동안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즐겁게 책 그리고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첫 시작은 유월옥 강사가 진행하는 **책날개 행사**로 매주 화요일 10시 총 4회 실시하였다. 유월옥 강사는 지역 내 상당한 인기 강사로 바쁜 일정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책날개 수업은 그림책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 생각과 상상력을 넓히고 창의력을 함양한다. 수업은 회당 15명 내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선

착순 모집을 통해 단 1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 서먹함에 굳은 얼굴이었지만 10분 후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손뼉 치며 노래 부르며 어색함 없이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수업 후에는 행사에 참여했던 한 아이 부모가 열린도서관에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왔다. 담당자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다.

연이어 **키즈 DVD 상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2년여간 DVD 구매를 하지 않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발간된 아동용 DVD 구매와 진행을 병행하여 총 45종의 DVD를 구매하였고 그중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DVD를 선정하였다. 키즈 DVD

행사를 진행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DVD 구매뿐 아니라 헤드셋 등 장비를 수리하고 필요한 장비(아동용/성인용 헤드셋 등)는 새롭게 도입하는 등 열린도서관 이용자분들의 편의와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매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키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에게 어떤 만들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며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인터넷 후기를 참고하여 '디폼블럭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예산 범위 안에서 디폼블럭 만들기 10종 95개를 구매하여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열린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아이들(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1개씩 제공하여 95개 모두 소진하였다. 특히 만들기 체험은 김천시민의 큰 관심 속에 체험행사 장소와 어

떤 걸 만드는데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각자 디폼블럭을 받아 앉아서 혼자서 혹은 학부모와 함께 즐겁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담당자는 뿌듯함도 느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 준비한 아쉬움도 함께 느꼈다고 한다.

열린도서관 재개방과 더불어 진행한 여러 행사는 우리회사 임직원 복지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을 위해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사들은 가족친화 기업으로서 회사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김천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열린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C**



싱글벙글 생각 키우기 책날개 교실 유월옥 강사 ♡

책날개 수업은 그림책 주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오늘 주제는 '높게높게'. 유월옥 강사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높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아이들은 손을 높이 들고 소리치며 대답한다. '백두산이요!', '에베레스트요!' '친구 누구의 콧대요' 정답은 없다. 다만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 들어본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답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종이컵을 높이 쌓는 등 체험도 함께한다.

“그림책을 이용한 책날개 수업은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대학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반도 있어요.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작가의 의도를 고민하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그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과 소통하고 또래끼리 소통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예요.” 유월옥 강사는 이것을 창의력 증진이나 아이들 정서 발달이 아닌 오히려 ‘힐링’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놀면서 자신과 주변과 소통하고 자신을 배우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날 책날개 수업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긴 시간 자칫 아이들이 집중력이 저하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렇기에 산만해지기 쉬운 아이들을 위해 인형극과 율동을 함께 준비해서 아이들 주의를 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화 구현과 책놀이를 시작하였다가 점차 연극과 인형극 등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늘려나갔다는 유월옥 강사는 이후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읽는 책날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영유아 교육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하였다는 유월옥 강사의 수업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E&C**



‘여러분 여기 강아지가
모자를 쓰고 있네요.
다음 장으로 넘겨봐요.
앗! 강아지가 쓴 모자가
하늘 끝까지 닿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높게 쌓아 볼까요?’



이상헌 상생노무처 사원 / 갤럭시 S3

체스키크룸로프 성 앞에서

체코 프라하 근교 마을 체스키크룸로프.
작고 귀여운 이 마을이 여행지로서 유명한 건
주황색 지붕 덕분이다.
체스키 성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면
햇빛 받은 주황 지붕들이 연이어,
마치 동화 속 예쁜 그림 같다.
몽게몽게 새털 구름에, 내 마음이 몽실몽실하다.

직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보에 소개된 분께 원고료를 제공합니다.

김천 직지사

화려한 색감의 캐논과 칼 선에도 나콘이란 공식이 있다.
물 빠진 중간색의 미놀타와 페인트통에 담아 빼낸 것 같은
진한 색감의 펜탁스 렌즈를 즐겨 사용한 적 있다.

육안이 식별하는 색, 렌즈의 이런저런 왜곡, 모니터 특성
따라 나타나는 색상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원래 그대로
자연색은 존재하지 않고 이는 물성의 불가해(不可解) 영역이다.

김천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평화의 탑 전경 사진이다.
지는 해는 흐릿하게 구름을 흔들어 대고
어둠에 맞춰 지상 탑은 황금빛으로 피어나고
꽃무릇이 붉게 피었다.

3개 피사체는 '빨간색' 스펙트럼으로 묶이지만
곳곳에 청녹 노란 검정 잿빛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일순 빛의 향연, 화엄장이 열렸다.



과학 꿈나무 기르기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김경환 주무관

약속 시간 30분 전 촬영 겸 미리 둘러보려고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 입장하니 키즈 놀이동산(Play Zone)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깥에서 보기와 달리 실내는 꽤 넓어 보이는 5층 규모이다. 복도에서 핵융합과 토륨원자로 패널을 읽어보았다. 스테이크 도시락 파는 구내식당도 제법 크다. 풀돔과 서큐러 영상관, 세미나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활발히 돌아다니는 어린이 뒤에서 어린양을 모는 젊은 부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흰칠한 키와 캐주얼 복장, 짧은 장교형 머리를 한 김경환 주무관이 안내데스크 연락을 받았는지 웃으며 맞이해준다.

“관람객은 주중 백 명, 주말 천 명이 찾아옵니다. 구미 칠곡 상주 성주 대구 아이들도 오구요. 요즘 애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녀 토, 일 방문이 많습니다. 만지고 놀고 튕구는 체험을 과학과 연결해 즐거움을 안겨주는 콘셉트입니다. 소세지 원숭이 ‘코코몽’ 알아요? 뽀로로 같은 캐릭터인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상영관에서 그걸 10번 이상 본 친구도 있습니다.” 나중 인터넷 검색으로 코코몽의 친구 로봇공과 토끼 아로미도 찾아보았다.



미국은 스타트렉 팬이 두텁고 파운데이션, 둔(Dune) 대하 SF시리즈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대중 과학 서적 집필과 강연에 앞장선다. 일본을 여행하면 지자체와 학교가 주관하는 로켓과 로봇 경시대회나 이벤트를 흔히 본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저변이 얇고 사회적 관심도 덜해 과학 문화 환경이 척박한 편이다.

김 주무관은 “학교에서 시험과 성적으로 줄 세우다 보니 멀어지는 아이도 있어요. 처음 무관심한 친구도 손으로 만져가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흥분 빠져듭니다.” 그가 성큼 성큼 걸어가 모형 하나를 책상 위로 가져왔다. 우리 회사 28층 사옥 모델이다. “3D 프린팅 기계로 뽑은 어린이 작품입니다. 열심히 설계 디자인을 짜고 출력과정을 3년 공부하여 혼자서 만들어 내었습니다. 과학관에는 메타버스체험, 3D 초콜릿 푸드 프린팅, 목공 공방 등의 참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는 ‘체험 중 재발견 현상’의 에피소드를 들려

주었다. 자녀에게 목공을 시키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아빠는 구경만 할게. 손재주 없어서” 그런 아빠가 나무 굴곡 자르기를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로 해내었고 무엇보다 아빠 스스로 무척 놀랐다.

왕 가위 감독의 중경삼림과 화양연화 영화를 좋아한다는 답변 뒤

일어난 일이다. 대화 물꼬는 셋길로 빠져 급류로 흐르고 말았다. “대뇌피질 시상하부의 뉴런과 시냅스에도 양자얽힘 현상이 일어나 Copy 아닌 Move 방식으로 정보가 과거로 전달되면……” 그의 말을 듣고 머리 회로 안쪽 전구 하나에 불이 들어왔다. 백아가 줄을 끊는 이유는 지음(知音)이 없기 때문, 이야기에겐 맥락과 의미가 있어 그걸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서로 ‘아’와 ‘어’가 통하다 보니 초식 몇 개로 과학 전방위를 훑게 되었다. 여하튼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 다이스 프리먼, 아서 궤슬러, 로저 펜로즈, 에드워드 윌슨의 자막이 내면 속에 계속 스쳐 지나갔다.

알코올램프로 실험 플라스크에 물 끓이는 실습만이 유일했던 시대, 그것도 열 명이 팀을 이뤄 한 명만 실험 도구를 만져보는 행운을 누린 베이비부머 세대는 교과서 이외에 과학을 몰랐다. 동시대를 살아온 김 주무관은 이런 경험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기폭제가 되면 관심은 비약장 발생장치로 연결되어 우주로 날아가는데 그런 ‘신기한 흥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를 살펴보는 ‘6도씨의 미래 영상’도 과학관의 그런 기획 차원 중 하나이다.

전문가에게 말하면 그만인 것을 대중화는 뭐하냐는 시각도 있다. 중국, 인도, 중동에서 과학의 꽃나무가 일찍 찬연히 피어올랐다. 유럽은 야만에 머물렀다. 그러다 모든 게 역전되었다. 유럽은 과학을 직업화, 대중화하여 힘을 축적해 나갔다. 앞선 나라들은 지적유희로 간주하여 폐기하고 말았지만. 영국왕립도서관에 가면 과학실험에 청중이 동원되어 놀라운 표정을 짓는 그림이 많다. 진공 속의 새 관찰 같은 것. 프레이저 경의 ‘황금가지’에서 인류는 주술로 살다가 종교로 넘어가고 과학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신화예언을 담고 있다. 한 나라 토양이 씨앗을 잘 간직하여 비 내리면 꽃 피어낸다. 대중화를 통하여 김 주무관은 그런 꿈나무를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E&C**



갈등은 추측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하기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는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양 할 때가 있다.

“팀장님이 그렇지 뭐, 언제는 우리 생각한 적 있어?”

“다 실적 때문이겠지. 아무리 실적이 중요해도 뭘 그렇게까지 해?”

“요즘 신입사원들은 뭐든지 웬만하면 빠지려고 하니까...”

추측 아닌

질문으로

갈등 예방하기

갈등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추측하는데 익숙하다. 추측에는 당연히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사전에 형성된 선입견이 개입된다. 그러나 갈등 상황을 해결의 국면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선부른 추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필자는 학교 및 관공서의 IT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한 기업의 마케팅 회의에 모니터링 차원에서 참관을 한 적이 있다. 그 날의 회의는 주요 고객사의 연간 위탁운영에 대한 제안이 타사와의 경쟁에서 실패한 후 갖는 대책 회의였다. 시작부터 분위기는 심각했다. 중요한 계약 수주에 실패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회의 구성원들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고, 해당 팀 리더와의 대화는 아래와 같이 출발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모자랐대? 박차장! 확인해봤어? 초안 작성자가 누구야? 누가 실수한거야? 아, 진짜 경영진 회의 때 얼굴을 못 들겠더라.”

회의 분위기는 경직되고 모든 팀원들은 갯벌에서 잡힌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뭐든 의견을 내보라는 리더의 채근에도 누구 하나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없었고, 회의는 예상 시간보다 일찍 별 소득 없이 마무리 되었다. 사실 필자는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았다. 많은 기업의 회의를 모니터링 해보면 이처럼 잘못을 추궁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질문들이 쏟아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팀의 리더가 구성원들에 물어본 것은 질문이 아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나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고 공격하기 위해 쏘아대는 비난의 화살일 뿐이다.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 바람직한 회의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는다. 이 팀은 다음 주에 또 다른 고객사에 유사한 제안을 앞두고 있었다. 이 대책회의는 이전 제안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다음 주 제안에 성공할 수 있을かを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도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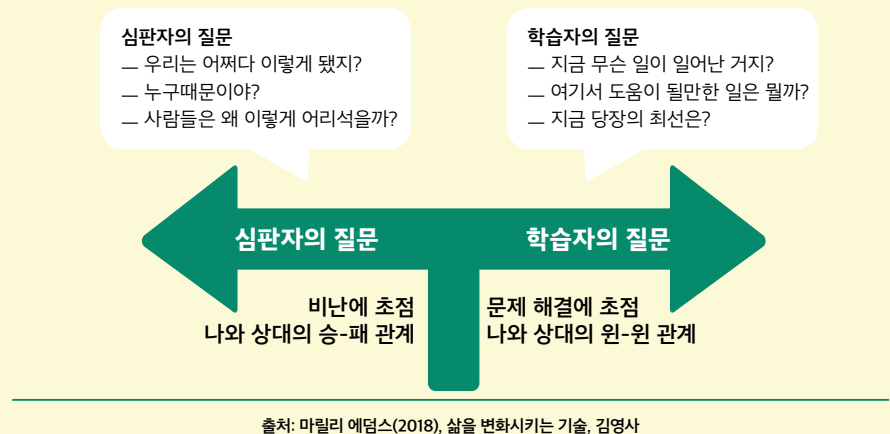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의 저자인 마릴리 에덤스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본 회의에서 나왔던 질문은 심판자의 질문이다. 마릴리 에덤스는 질문의 두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하나는 심판자의 질문, 또 하나는 학습자의 질문이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었던 심판자의 질문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흔하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거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지?”

모두 비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심판자의 질문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누가 잘못을 했고 안 했는지 등 승-패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반면에 학습자의 질문은 초점을 맞추는 대상과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성장을 위한 학습자의 질문은 습관적 반응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의식적으로 도출된 질문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렇게 학습자의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 나와 상대의 윈-윈 관계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매년 갈림길을 만나고 매번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질문 하나만 해도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의의 진행이나 일 처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회의의 질문을 학습자의

질문으로 바꿔 본다면 어떨까?

심판자의 질문	학습자의 질문
• 이거 누구 때문이야? • 도대체 뭐가 문제래?	• 심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 우리가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다시 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심판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팀원의 반응과 학습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팀원의 반응을 상해 보자. 심판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기 방어와 회피 반응을 하게 되지만 학습자의 질문을 받게 되면 문제해결에 근접한 생각과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답변자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진다. 갈등 상황에서 학습자의 질문을 해보자. 학습자의 질문은 갈등을 키우지 않고, 갈등 해결의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는데 힘을 발한다. **E&C**

[참고자료] 조직갈등관리 트레이닝북(박효정, brainLeo) /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마릴리 에덤스, 김영사)



모두가 함께 노는 폐교 에제르

가을이 주는 기운은 차분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가을 운동회'가 열렸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제법 활력이 돋는다. 학교 앞만 지나가도 어린 시절의 향수가 물씬 풍기는 계절이다. 그런 날에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작은 시골 학교로 놀러 갔다. 정확히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에제르'라는 곳이다.

에제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 장애인과 은퇴 노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모든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정겨운 시골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에제르로 들어가는 교문이 있었다. 한때는 재잘거리는 초등학생들이 수도 없이 오고 갔던 문이었을 것이다. 학생이 떠난 학교는 아무래도 텅 빈 채 쓸쓸할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내 추측은 보기 좋게 틀렸다.

동화 속 그림 같은 학교 정경

교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초록빛 잔디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운동장을 둘러싼 길에는 색색의 꽃으로 빼곡한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정경이 아름다웠다. 이 작은 학교의 모든 시간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으리라. 예상되는 커다란 나무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사는 곳은 조성된 지 얼마 안된 신도시다 보니 커다란 나무를 마주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 동네에는 심은지 얼마 안 된 앙상한 나무들이 지지대에 기



2022 09 + 10

대어 간신히 서 있는 풍경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그 모습을 보면 꼭 이 낯선 곳에 간신히 적응하고 있는 날 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쓰러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시간의 세례를 오래도록 받아 온 거대한 나무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다. 내 결핍이 만들어 준 갈망이다. 이제는 커다란 나무만 보면 몽클할 정도로 좋다. 이 작은 학교에는 날 위로하는 두꺼운 나무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떠난 학교가 쓸쓸히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생동감 넘치는 아늑한 정경이었다. 학교는 폐교됐지만, 가꾸는 이들이 있었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 공간이 '학교'라는 역할을 지나보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찾아냈다는 걸 실감했다. 두 팔을 펼쳐도 다 감싸 안을 수 없을 두꺼운 기둥의 나무 아래 돛자리를 깔았다. 에제르 안에 카페가 있었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돛자리 위에 누웠다. 누운 채로 반가운 플라타너스 나뭇잎과 그 사이로 비치는 하늘을 보는데 나를 꼭 채우고 있던 잡념과 긴장이 사르르 녹았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쉼을 누렸다.

너와 내가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

아들은 잔디 운동장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집에서는 층간소음때문에 아이를 저지하기 바빴고, 산책하러 나가더라도 늘 부딪칠것을 염려하느라 마음껏 뛰게 할 수도 없었다. 넘어져도 안전한 잔디 운동장을 마음껏 뛰는 아이의 환한 표정을 보며 내가 다 후련했다. 그런 아이 곁에서 나 역시도 덩달아 뛰었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한 갖가지 놀거리(공, 킥보드, 자전거, 장남감 등등)가 놓여있어서 더 다채롭게 놀 수 있었다. 나무그늘 아래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주말에는 에어바운스와 꼬마기차도 이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연다고 하니 또 와야겠다 싶었다. 아이는 아빠와 공놀이를 한참 했는데 공을 넣는 골대 바로 뒤에 꽃밭이 있었고, 그 꽃밭 골대마저 비현실적으로 예뻐다. 꽃밭골대 앞에서 공놀이하는 아이의 모습을 열심히 사진으로 남겼다. 이날 찍은 사진을 보며 결국 지나갈 우리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다고 느꼈다. 일상에서도 세 가족이 마음껏 뛰노는 시간을 더 자주 갖고 싶어졌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짐을 쌀 계획이다. 세 가족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바닷가를 찾아봐야겠다. **E&C**



부동산경매

시니어 직원분 중 요즘 부동산경매 교육받는다는 분을 여럿 만났다.

“공부가 어떤가요?”, “권리분석이 어려워요.” 권리분석은 파고들면 난해하고 원리와 개념 수준이면 어렵지 않다. 일명 특수물건은 지상권, 유치권, 지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걸린 물건으로 입찰 경쟁도 피하고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는다. 상대적으로 저당권, 압류는 법률관계가 명확한 편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독해하는 수준이면 누구나 경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유치권, 지상권 등은 천 페이지 넘는 사례집을 보아도 개별소송에서 다투어 보아야 결과를 알수있기에 전문 영역에 해당한다.

“부동산 명도가 까다로운가요?” 명도는 생각보다 수월하거나 예상을 뛰어넘어 난처하게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평범한 사람과 독한 사람 만날 확률이 9:1이라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도 열에 한 명 정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명도는 비용과 시간이 걸려 해결은 되지만 마음고생을 한다. 미리 문제점을 가늠해 보는 쪽이 좋겠다. 명도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쉽다고 경시해서도 안된다. 대체로 아파트나 나대지 쪽은 명도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다. 주택과 토지에 별도 시설물이 있거나 소유자가 불명확한 장착물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다양한 부동산을 골라 중개사를 통해 매입하면 높은 가격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매는 입장과 입찰참가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수고가 따른다. 시가보다 20~30% 싸게 매입하는 게 목표라면, 1억원 부동산을 7천만원에 낙찰받으면 3천만원을 절약한다. 주식투자와 비교하면 원샷에 큰 이익이 생긴다. 반대로 형편없는 물건을 고가에 구입하면 손실도 크다. 예를 들어 상가는 목(위치)과 상권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경매에서 반값으로 낙찰받았다고 좋아해도 팔 때 한 번 더 반값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손실이 크다.

경매 관련 서적은 경매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다룬다. 책으로 배우기보다는 법원경매에 만나 절 참관하면 분위기와 감을 쉽게 잡는다. 낙찰되면 절차 따라 통지서가 매번 날아와 진행을 따

라가면 된다. 무엇보다 경매 핵심은 입찰가격 쓰기와 낙찰 성공 여부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또 어떤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 입찰에 쓴맛을 겪으면 경쟁자를 물리치려고 높은 가격을 내어 낙찰을 받는다. 이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남 눈에도 그렇게 비친다. 좋은 물건을 노리고 유찰을 기다리면 공격적 입찰자가 앞서 거두어 가버린다.

입찰가격은 감정평가서산출액, 부동산매매거래신고가, 해당지역 유사물건 낙찰가, 유찰율, 현지 공인중개사의 시세담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부동산 가치는 평가와 판단에 따라 다르기에 역시 무중(霧中) 상태가 많다. 감정평가액은 6개월, 1년 전 과거 자료고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다. 주변 위해시설물 같은 입지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다. 부동산은 같은 지역에 있어도 위치 따라 가격이 다르다.

가격정보 노출이 높은 아파트는 경쟁이 심한 종목이다. 작은 액수로 낙찰이 가려지고 아주머니 팀들이 여럿 경합할 때도 있다. 다가구주택과 지분경매는 일반인보다 업자(?)들 참여가 높은 듯 보인다. 모텔과 목욕탕은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 유리하다. 토지는 허가지역(계획관리, 절대농지 등), 위치, 도로 접근성 따라 경쟁률이 달라진다.

경매는 끈기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물고기를 낚는 방식이다. 수익은 주식투자보다 폭이 넓고 깊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1년~2년은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부동산경매는 투자의 한 루트다. 다른 투자와 비교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특히 자신의 재산권 방어 지식을 습득하는 장점이 있다. 사회에는 알은 지식과 그릇된 상식으로 임차보증금을 날리는 사람이 무척 많다. 주택경매에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신청을 법원에 했는지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그게 안전한 물건임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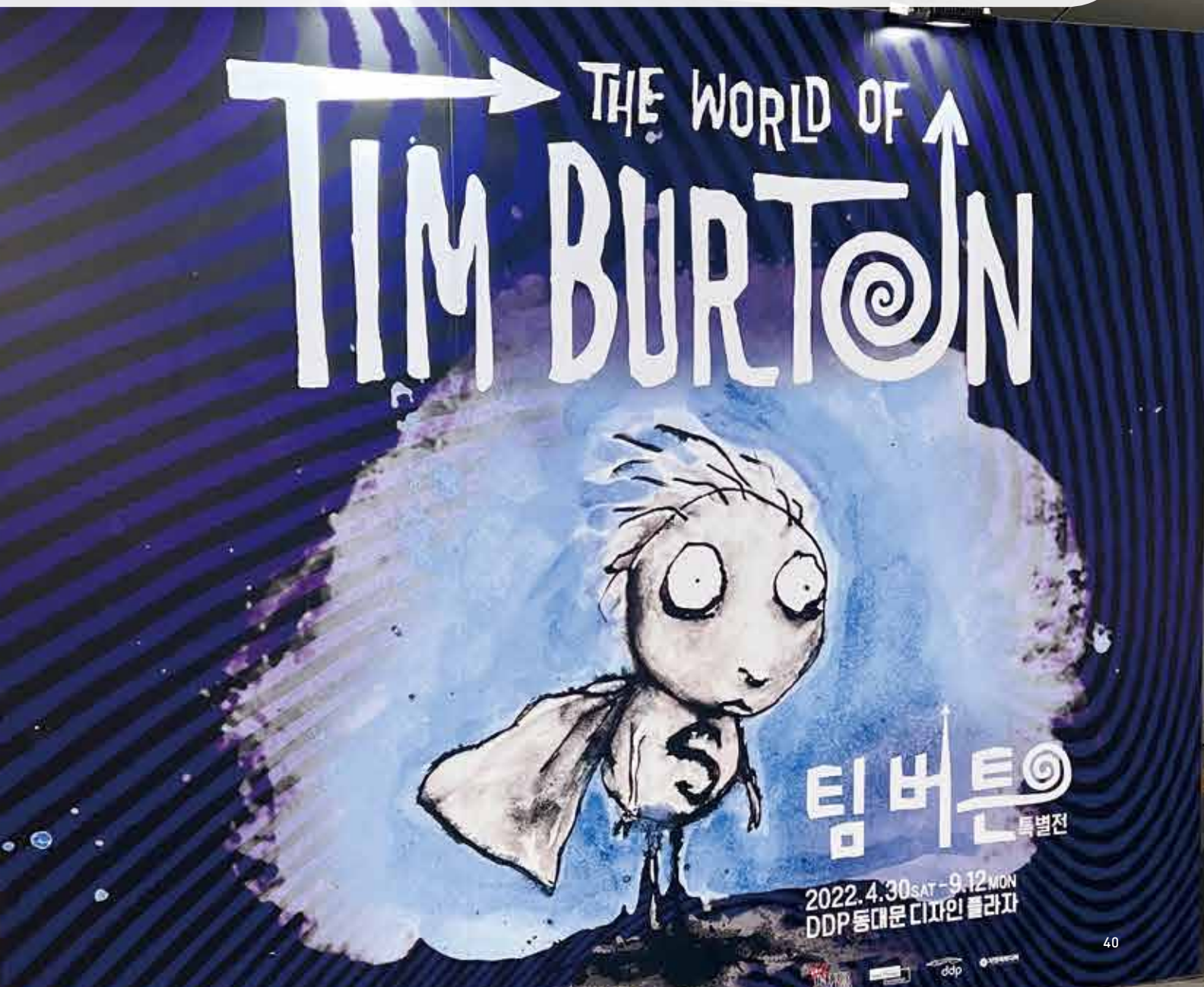
The World Of Tim Burton 괴기한 즐거움 속으로

팀 버튼 특별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아이가 있었다. 언어 표현보다는 시각 연출을 통한 표현에

남달랐던 팀 버튼 감독 이야기이다. 팀 버튼 특별전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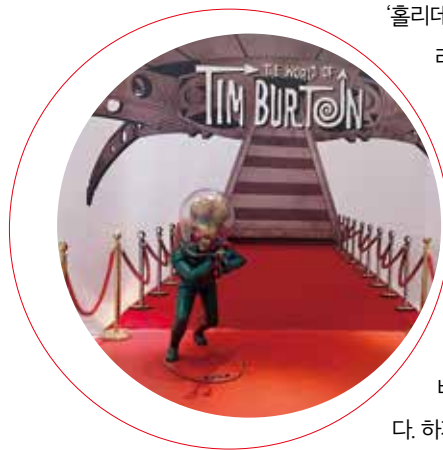
팀 버튼 감독 월드투어 프로젝트 중 첫 전시회. 한국에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전시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전시회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전시를 그대로 가져와 팀 버튼 감독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였다면 이번 전시회는 팀 버튼 감독이 직접 기획한 오롯한 자신의 시선을 녹여낸 특별전시회라 더욱 의미가 깊다.



전시회 입구에는 팀 버튼 감독이 특별히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풍선 괴물이 관람객을 반겨준다. 괴물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기괴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귀엽고 친숙함도 공존한다. 이러한 모순이 바로 팀 버튼 감독 작품의 매력이다. 유머와 공포 이 모순적 두 가지 요소를 녹였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장난 같은 그의 작품세계를 '카니발레스크'(Carnavalesqu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절제가 필요한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마음껏 욕망을 채우는 카니발이 경건한 종교적 의미와 동시에 사치와 유흥을 함께 담은 모순을 파악하고 이를 작품에 응용한 것이다.



전시회장에는 빨간색으로 벽이 칠해진 방이 있다. 벽에는 하얀 눈이 내리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의 작품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 '홀리데이'를 표현하였다. '크리스마스 악몽'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팀 버튼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홀리데이인 할로윈과 크리스마스를 연결한다. 버뱅크(Burbank)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그는 평소 조용하던 그의 동네가 할로윈이 되면 분장을 하고 집을 꾸미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는 모순을 발견하고 몽환적이면서도 기괴한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의 합체를 보여준다.



어린 시절 '가위손', '찰리의 초콜릿 공장'과 같은 팀 버튼 작품을 좋아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작품을 마주하기 어렵고 불편하였다. 팀 버튼 감독은 작품에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당하고 오해받는 인물을 등장시킨다. 사람들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오해로 쉽게 상처받는다. 한때 성공 가도를 달리던 팀 버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 배트맨 시리즈의 실패이다. 관객과 평단의 혹평이 쏟아졌다. 그때 쓴 작품이 바로 '굴 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결점을 지닌 인간이나 괴물이 우리의 자화상과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이나 사소한 오해로 배척하는 이중성이 가지는 불편함을 여지없이 그의 작품에서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느낀 이런 불편함에 대한 오해를 씻어준다. 팀 버튼 감독이 괴물과 소외자들을 통해 불편한 자화상을 계속 등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에 대한 저항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괴물은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상대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시선이 괴물을 비정상적으로 규정지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소외당하는 존재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넨다. 이것이 그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팀 버튼의 배트맨에는 펭귄맨이 등장한다. 영화를 끝까지 본다면 기형으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해 뼈뿔어진, 그래서 악행을 일삼는 펭귄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 대척점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다크나이트'에 등장하는 조커가 있다.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아무 이유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 그 자체이다. 이해할 수 없다.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공포 그 자체이다. 하지만 팀 버튼 감독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르다.

팀 버튼 감독의 대표작 가위손에서 에드워드 가위손이 감독의 자화상이듯 그의 작품엔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가 기획한 이번 전시회도 훌륭한 그의 영화 한편을 보는 것과 같다. '오해받는 소외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감독과 의사소통하며 마침내 이해할 수 있다. 전시장 마지막 출구 옆에는 그의 서재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다. 팀 버튼 감독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소품 하나하나 그의 방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준비했다. 여기서 우리는 팀 버튼 감독이 된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투영하듯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팀 버튼 감독이다.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에게 동화되고 결국 우리는 '그'가 된다. E&C



사투리 가족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식구가 다섯, 여섯이었는데 사투리도 그만큼 있었지 싶다. 아버지는 이북사투리, 엄마는 전라도사투리, 식구들이 말할 때는 부산사투리, 나는 서울말, 이렇게 썼으니 옷을 일도 많았다. 나는 아버지의 이북 사투리가 참 좋았는데, 오마니, 아바지, 에미나이, 소나, 했지않갔니? 관두라우, 하지안카서? 등등... 아버지는 성량이 넓고 풍부 했는데, 웃음소리와 함께 특유의 이북 말은 아버지만의 전유물 같았다. 사람들이 싸우거나 그럴 때 아버지가 가서 그 큰 손으로 서로의 어깨를 툭툭치면서 “와 이라니? 이라면 되가서? 그만 하자우야 아아들이 보고있지 않네? 뭐 그만저 갖고서리 다툼질이가? 이리 오라우, 한 잔들 마시고 툭툭 털어버리라우야.” 대부분의 싸움은 그것으로 끝났다. 아버지 사투리는 그럴 때 그렇게 좋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그에 못지 않게 특유의 사투리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사람은 엄마였다. 평소의 말은 완전 부산 사투리인데, 놀라거나 화나거나 다투거나 감탄사는 완전 전라도 사투리였다. 내가 뭐가로 엄마의 화를 돋구면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며 전라도 방언이 마구 쏟아진다. “오메! 오메! 저 잡것 좀 보소야! 우째 저런 오사리 잡것이 다 있다야! 어매 말에 겁따시도 없이 눈까리를 땡글땡글하게 쳐 뜨고 날로 치다보는 것 좀 보소, 저거 아배가 버릇을 드럽게 들어서 어매 말은 말같지도 않은가? 참말로 저 잡것을 으찌 쓰까나?” 그런데 정작 나는 그 말이 재밌고 우스워서 킁킁거리며 엄마를 더 돌게 만들었는데, 엄마는 나를 때리지도 못 하고 방방 소리질렀다.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것을 알게 되는 날엔 부부싸움이 터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열 세살이나 어린 아내를 너무 사랑했으나 내 문제 앞에서는 요지부동이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몇 번 맞았는데 전부 나 때문이었다. 남동생과의 문제가 얹기면 부부싸움은 세계 대전이 되고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내가 진철이를 어디서 낳아서 델꼬 왔능교? 알라를 뺏을 때도 아 아부지는 저놈의 가스나를 이뻐하느라 본체만체해가꼬 이 알라를 쥐새끼맨치로 새까맣고 쪼끄맣게 낳았다 아잉교? 시난고난 억지 살기로 목숨을 잇아가는 저노매 새끼가 당신은 불쌍하지도 않능교? 아이고 새치버라! 아부지가 딸년한테 빠져서 아들을 못 본 체 하는 일은 세상 천지에 듣도보도 못 했다이요!”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 이렇게 목이 메어 사설을 늘어 놓으면, 이웃사람들이 오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피난 갔다.

엄마는 집에서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먹이고 아버지는 밖에서 딸에게 좋아하는 것을 사주었다. 그리고 이송도 바닷가라든지 빨간 등대에 앉아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면서 낮은 목소리로 쓸쓸하게 말했다. “아바지레 잘못했어야. 니 오마니 말마따나 나래 진철이를 너무 무심하게 대했지 뭐니? 그노매 아 새끼래 살려고 기를 쓰는데 니 오마니래 그래 애간장 녹이는데 아바지래 니 밖에 몰라서라…….” 그렇게 자책하는 아버지 품에서 나는 훌쩍 훌쩍 울면서 다시는 엄마에게 대들지 않고 동생도 더 잘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업고 춤추 듯이 둥실 둥실 걸으면서 크게 웃었다. 아버지는 내게 과자를 사주었고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얌전하게 엄마에게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드셔요.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철이도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세요.”

너무나 짝뚫한 서울말로 극존칭을 쓰면서 고개 숙이는 내게 엄마는 말도 못 하고 입을 빼꼼거렸다. 나의 사과를 놀리는 것으로 받아들인것이다. 원래 엄마는 내가 표준어로 말하는 것을 프악하게 여겼고 특히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기에 못 된 딸은 일부러 더 그랬다.

아버지가 불일 보러 나가면 엄마는 쥐어박는 시늉을 하면서 “애나! 이 불여시아! 확 썰리뵈으면 종케꾸마는, 니 아바지 무서바서 참는다 .언제 한 번 비 오는 날에 먼지나도록 뿌디리 맛을 줄 알아라! 오매 저 징한 잡 것!” 엄마는 오꼬시를 내게 하나도 안 주었으나 나는 속으로 혀를 내름했다. 내 방 책상 서랍 안에는 아버지가 사다 준 맛난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여러 지방의 말이 오갔던 집이었으나 재미나고 즐거운 일이 많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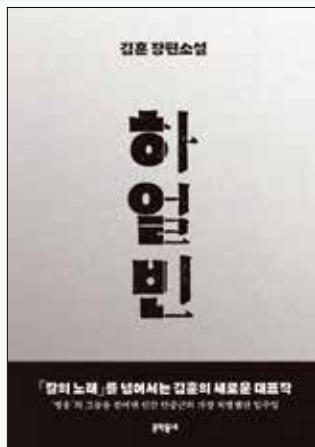
그렇게 웃고 떠들고 울기도 하고 함께 있던 시간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렇게 홀로 남았다. 배우 윤정희처럼 예뻐던 울 엄마 미안합니다. 내 삶의 응원군이었던 아버지, 아버지 사투리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흩어지고 사라졌으나 기억은 이렇게나 선명하게 마음 속에 남아 있다. **ESC**

Culture

Book

하얼빈

김훈 지음 | 문학동네



‘칼의 노래’를 넘어서는 깊이와 감동

안중근에게 드리워져 있던 영웅의 그늘을 걷어내고 그의 가장 뜨겁고 혼란스러웠을 시간을 현재에 되살려 놓는다. 난세를 헤쳐가야 하는 운명을 마주한 미약한 인간 내면에 집중하는 김훈의 시선은 ‘하얼빈’에서 더욱 깊이 있고 오묘한 장면들을 직조해낸다. 소설 안에서 이토 히로부미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의 물결과 안중근으로 상징되는 청년기의 순수한 열정이 부딪치고, 살인이라는 중죄에 임하는 한 인간의 대의와 윤리가 부딪치며, 안중근이 천주교인으로서 지닌 신앙심과 속세의 인간으로서 지닌 증오심이 부딪친다.

Book

알고 있다는 착각

질리언 테트 지음 | 문희경 옮김 | 아크로스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낯선 진실을 발견하는 인류학자의 사고법

경제 전망은 수시로 빗나가고, 선거에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금융 모형이 실패하고, 기술 혁신이 위험으로 돌변하고, 소비자 조사는 현실을 호도하는 현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기존 사회 분석 도구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복합적인 원인을 포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세계 속 진짜 문제를 읽어내기 위한 도구로 인류학을 제시한다. “인류학은 아마존 밀림만큼 아마존 창고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말하는 그는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그 이면에 감춰진 단서를 포착하고 인류학의 새로운 쓸모를 보여준다.

Exhibition

2022 창덕궁 달빛기행

창덕궁 일원 | 2022-09-01 ~ 2022-09-25(10월 행사 추후 공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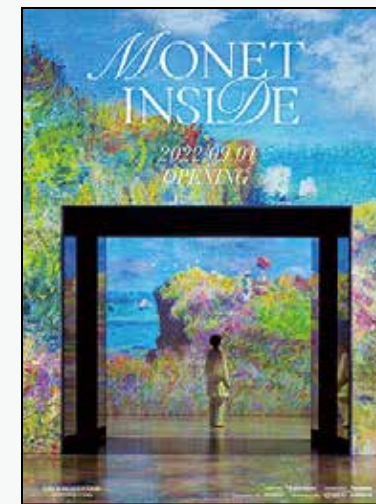
조선시대 왕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궁,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녹음이 어우러진 창덕궁에서 청사초롱 불을 밝히며 궁궐 곳곳 숨은 옛이야기를 찾아보자. 전문해설사의 안내 해설이 함께한다. 낙선재 후원 내 상량정에서는 대금의 청아하고도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연경당에 도착하면 전통예술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희정당(熙政堂) 내부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외현당을 개방해 근대기 조명이 켜진 희정당의 모습을 선보인다.

Exhibition

모네 인사이드

그라운드시소 명동 | 2022.09.01~OPEN RUN



찰나의 빛에 영원을 담다

<모네 인사이드>는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가 남긴 소중한 명작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이다. 르아브르의 캐리커처 화가로 시작해 자베르니의 수련 연작 대서사시에 이르기까지. 고단한 일상의 순간에서도 한 줌의 빛을 찾아낸 클로드 모네의 찬란하고도 열정적인 여정이 펼쳐진다.

Editor's Letter

K-Pop 아이돌을 동경하는 일본 여학생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분투하는 장면을 일본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일본인 부모 옆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라다 트와이스를 좋아하고
BTS 팬이 되고 한국어도 공부하는 그들은
한국문화에 거부감이 과히 없습니다.

일본 만화와 애니 영화를 보며 성장하다가
고등학교 때 홍콩 르와르에 폭 빠지고
아메리카 팝송과 할리우드 영화를 탐닉하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외국 문화의 젖줄을
열심히 빨던 한국이 언제쯤부터 우리식 문화를
직조해 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이란면 ‘강남 스타일’
말춤을 추며 웃던 사람들이 어느새 블랙핑크의
붐바야 춤에 환호하고 이제 오징어 게임은
지구촌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K’ 문화 기세가 무섭습니다.

보통 문화력은 그 나라 성장 속도와 일치합니다.
K-Culture 유행이 이제 막 돌음의 시작인지
정점의 끝인지 지나 보아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물들어 올 때 노 젓는
시기인가 봅니다. ‘시그널’과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걸 만드는구나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원고모집



■ 독자 누구나 여행이나 맛집, 반려동물, 취미 등과 같은
여러분의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실 분을 모십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 **분 야 :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는 에세이**

▶ **원고 분량 : A4, 2면**

원고료 제공합니다.

■ 여러분의 추억이 깃든 사진이나 짧은 에세이를 적어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 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1면**

원고료 제공합니다.

독자의견 및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원고는 10월 15일까지 sky03tree@kepco-enc.com으로
보내주세요. 원고나 독자의견을 보내주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보내주셔야 상품 전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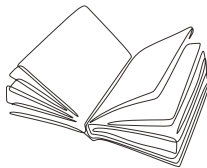


독자의견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신경인** (사외독자)
- **김은미** (사외독자)
- **최영수** (사외독자)
- **전경욱** (사외독자)
- **강건우** (사외독자)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2020년 한기를 정년퇴직한 입장으로서 집으로 배달되는 한기 Family를 들춰보면 후배들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한기의 발전소식에 저절로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으로 보아 아직
한기인이 틀림없습니다. 금번 호에서 김천 연화지의 교동 872 돈까스집 방문기를 보고는 너무나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의 Bucket List에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김천에서 4년여를 생활했지만
왜 여기를 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되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Bucket List에
올렸으니 만큼 조만간 김천을 방문해서 꼭 돈까스를 시식하리라 몇번씩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배달이 가능하면 좋으련만?

(신경인 사외독자)



• 여름 휴가 여행을 계획하던 차에 지역탐방 '수생식물학습원'이 눈과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천상의 정원'이란 수식어답게 여름의 싱그러움을 가득 담은 초록산, 시원하게 탁트인 대청호와
함께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수생식물학습원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번 여름은 천상의
정원인 수생식물학습원을 거닐며 일상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고 싶습니다.

(김은미 사외독자)



• KEPCO E&C 직원의 스테인글라스 체험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대구 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에 스테인글라스 성화가 있기에 더욱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작업하면서 자신의
꿈꿈함을 느낀 분, 처음 디자인을 포기하고 완성에 초점을 맞춘 분, 손으로 하는 일에 느릴 것으로
생각한 분이 가장 먼저 끝낸 것이나 신비한 체험을 위해 참가해 유리 절단의 어려움을 느낀 분이냐
만드는 시간내내 집중해서 완성 작품들에 각자의 정감과 체험의 기쁨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되었고,
실제로 전원을 켜면 매력적 빛의 아름다움을 맛 볼 것 같습니다.

(최영수 사외독자)



• 드론으로 김천을 띄우다. 카카오드론의 소개글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드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퇴직전 자기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개척했다는 카카오드론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비록 회사는 떠나지만 새로운 인생 2막까지 배려하는 KEPCO E&C의 인사시스템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퇴직자 모습 모두 인상깊게 각인 되네요. 현직에 종사하는
후배직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멘토로서 그리고 미래 KEPCO E&C에 몸담고자 하는 예비
지원자들에게도 퇴직자 수기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경욱 사외독자)



• <갈등관리와 소통> 칼럼의 'HERO 대화로 부서간 업무 협업도 유쾌하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서간의 즐거운 소통의 변화 만들기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깨워주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호에 소개된 <타 부서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한 HERO
프로세스>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강건우 사외독자)